

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고시 개정('23.2.1) 안내자료

1. 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」 개정 · 시행일 이전에 수입허가(신고) 신청서를 제출한 수입금지 품목(석탄재, 폐타이어)에 대한 처리는?

- (경과 규정) 수입제한 고시 개정 · 시행일 이전에 수입허가(신고)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
- (포괄 수입신청) 수입제한 고시 개정 · 시행일 이전에 포괄허가(신고)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(신고) 받은 기간(12개월 이내)까지 수입을 허용, 다만, 포괄허가(신고)를 통해 한꺼번에 수입허가(신고)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'23.12.31일까지로 함

2. 수입이 금지되는 폐타이어 중 대형타이어와 철심은 수입이 허용되는데, 대형타이어(칩)와 소형타이어(칩)를 어떻게 구분하는지?

- (성분) 폐타이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 중 강철의 비중이 대형타이어는 약 27%, 소형타이어는 약 15%로서, 대형타이어의 강철 비중이 높은 반면, 섬유 및 기타 잔여물이 대형타이어는 약 3%, 소형타이어는 약 15%로서 소형타이어의 섬유 및 기타잔여물이 높음
- (외관) 대형타이어 파쇄품의 외관은 굵은 철사 형태의 강철이 많고, 소형타이어는 강철이 적음(사진 참조)
 - ※ 타이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, 수입허가(신고) 서류 검토 시 외관(사진 참조)으로 인정

3. 수입이 금지되는 폐타이어 중 대형타이어와 철심은 수입이 허용되는데, 폐타이어 철심의 재활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
- 고철(철심)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철심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게 기준으로 이물질 2% 이하로 공급하여야 함
- 또한,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재활용 유형 및 방법으로 철심을 재활용하는 경우 수입 허용

4. 보조가탄재, 고무분말, 재생타이어 등의 재활용 목적 이외*의 대형타이어 수입도 허용되는지?

* (예시) 대형타이어 측면부를 수입하여 저인망 타이어프레스로 재활용하는 사례 등

→ 재활용 목적의 대형 폐타이어 수입은 가능함

<대형타이어와 소형타이어의 외관 비교>



대형타이어 파쇄품



소형타이어 파쇄품

<폐기물(철심)의 재활용 기준>

폐기물의 재활용 기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,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 관련)

다) R-3-3 유형의 재활용 기준

폐지·고철 또는 고철을 종이·판지, 포장용 완충재,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---- 다음의 이물질(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, 수분은 제외한다) 함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가)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: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(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) 이하